WTO 가맹 후의 중국 섬유산업의 전망

중국의 섬유산업의 현황과 WTO(世界貿易機構) 가맹 후의 변화에 대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방직공업협회의 견해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는 낙관하고 있으면서 “우수한 기업은 더욱 발전하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망할 것(優勝劣敗)”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WTO 가맹 후 첫 해인 금년(2002년)의 경우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느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를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로 줄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WTO에 가맹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르지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변하여야 하며, 그러므로서 구조개혁이나 공평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 관세(關稅)가 인하되면 당연히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과의 경쟁은 막을 길이 없지만 중국의 큰 섬유기업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중국은 해외로부터 연간 600억위안(元 : 8조 7,800억원)이상의 텍스타일을 수입하고 있는데, 해외의 우수한 텍스타일은 중국 방직산업 발전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중국시장은 대단히 넓고 커서 수입 텍스타일이 대량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그 점유율은 미미하고 국내시장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섬유산업의 영업수입는 전년도보다도 8.6%가 늘었지만 직물과 가먼트의 수출은 전년도보다도 532억 달러가 증가하여 2.3% 증가에 머물렀는데, 이러한 실적은 근년에 최저의 신장률이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증가하여 화합섬은 828만톤, 방적사는 700만톤, 직물은 201억m의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수출은 별로 늘지 못하고 전년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면방적과 화합섬의 수출이 악화하여 전체적으로도 수익이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업계의 경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공급과잉이 주요원인이지만 면화가격과 화합섬 가격이 떨어진 영향도 있다. 수요시장의 니즈(needs)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도 있으며, 시장성이 좋은 고성능 차별화 제품은 잘 팔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강소성(江蘇省), 절강성(浙江省), 광동성(廣東省)의 3개성을 비롯하여 동부의 연해지역(沿海地域)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량 및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협서성(陝西省)이나 강서성(江西省)과 같은 내륙부(內陸部)의 많은 성들은 생산량, 이익, 수출고 등이 모두 떨어져, 제10차 5개년 계획이 끝난 후의 지역격차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변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면화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는 정부가 여유 양을 구입하여 가격인하를 막아주지 못하고, 국제 시장 가격변동에 맡기게 하는 등의 사태가 벌여졌다.

금년에는 두 가지 상황이 대두되었는데, 첫째는 섬유시장의 경기가 더욱 나빠진 것으로 그 이유는 중국의 부유층이 섬유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됨에 따라, 자동차나 주택, 여행 등으로 소비 환경이 변하여 중·저수입층(中·低收入層)의 수요에 맞춘 섬유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둘째는 국제적인 경기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금년 1 2월만을 보면 중국의 수출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등의 비쿼타국(非 Quota 國)으로의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낙관하고 있으면서도, 조심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